‘지역 산업정책 주도’ 산업혁신 핵심 기관 자리매김

전남테크노파크, 올해 지역산업 혁신성과 대거 창출
산업위기지역 지정·AI 전환·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

전남테크노파크(전남TP)가 올해 지역 산업정책 전반을 주도하며 전남 산업혁신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산업위기지역 지정 지원, AI·디지털 전환 촉진,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청년창업 기반 확장 등 주요 현안마다 성과를 내며 지역 산업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다.

10일 전남TP에 따르면 올해 여수국가산단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견인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리스크 완화 기반을 마련했다. 총 5개 분야 19개 사업, 3707억원 규모의 지원이 가동되면서 금융·재정·고용·R&D가 결합된 종합 대응체계가 구축됐다. 이어 여수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추가 지정되며 기업·근로자의 버팀력이 크게 강화됐다. 철강산업 역시 글로벌 관세·저가 수입 공세로 경쟁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전남TP 전략을 토대로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4081억원 규모 21개 사업이 추진된다.

AI·디지털 전환에서는 올해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났다. 전남TP는 ‘전남 AI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조례 제정을 이끌며 제도 기반을 구축했다. 여수국가산단은 ‘AX실증산단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205억원을 확보했으며, AI 기반 공정표준 모델링과 선도공장 구축 등 실증 인프라 조성이 본격화됐다. GS칼텍스·TKG휴켐스 등 산단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체계도 가동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사업’에도 연이어 선정돼 233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2019년부터 스마트공장을 지원해온 전남TP는 누적 827개 기업을 도우며 3년 연속 스마트제조 평가 S등급을 기록했다.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도 빠르게 확장 중이다. 전남TP는 전남도와 함께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 투자가 확대되며 원료·소재·제조로 이어지는 이차전지 밸류체인이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정부 ‘5극3특’ 전략에 맞춰 에너지·AI·바이오·모빌리티·우주 등 미래 산업 기반도 넓어지고 있으며, 지역주력산업은 에너지·소재부품·조선·바이오·우주항공 5대 분야로 재편됐다.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TP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133명의 청년창업자를 발굴했고, ‘전남 벤처·스타트업 페스티벌’에서는 50여개 기업이 참여해 전시·홍보관을 운영하며 초기 기업의 네트워크·판로 확장을 지원했다.

‘전남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은 기술개발부터 시장검증, 해외진출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연계해 150여개 기업의 매출·수출 증가와 고용 확대를 이끌었다. 대기업·투자사·해외바이어 등이 참여한 통합 비즈니스 상담회는 지역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했다.

지역 핵심 현안인 인구감소 대응도 병행됐다. 전남TP는 곡성·영광·영암·강진·장성 등 5개 시군에서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특화산업 기반의 활력 회복에 나섰다. 완도·화순·신안·해남 등 예비지역 4곳을 대상으로 한 신규 사업 기획도 진행 중이다.

기관 운영 성과도 이어졌다. 전남TP는 ESG경영을 강화해 ESG 2등급을 획득했으며, 전남도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2025 중소기업 융합대전’에서는 지역혁신 부문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해 기업지원·기술혁신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성과는 전남도와 지역 기업, 재단 임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넘어 전남 산업혁신과 지역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혁신기관으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지공간포털, 실거래가·토양정보 ‘한눈에’

농어촌공사, 시스템 개선…이용자 편의 향상

소유·임차하고 있는 농지 내역과 실거래가, 토양 정보 등 다양한 농지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서비스가 선보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대국민 농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공간포털(https://njy.mafra.go.kr)’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기획재정부 주관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과제’로 추진됐다.

농지공간포털에서는 본인 소유나 임차 농지에 대한 일괄 조회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본인 농지 정보를 확인하려면 농지가 위치한 지역 행정기관에 방문해 수수료를 내고 등본을 발급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온라인 본인인증만 거치면 소유·임차한 모든 농지 내역을 무료로 일괄 조회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농지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과거 농지공간포털은 농지 지번을 입력하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5종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시스템 개선으로 기존 정보 5종을 포함해 농지 실거래가 정보(한국부동산원), 토양정보(농촌진흥청)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영농 규모를 늘리려는 국민은 농지의 실제 거래 가격 흐름은 물론, 재배하려는 작물에 적합한 토양인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도입된 ‘농촌 체류형 쉼터’ 등록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본인인증을 거친 이용자는 쉼터의 건축 면적, 생활 설비 설치 유무, 설치 연월일 등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편은 흩어져 있던 농지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농지정보 접근성과 편의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해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금호타이어는 최근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를 갖고 광주 광산구청과 곡성군 입면사무소에 총 김치 120박스를 전달했다.

금호타이어,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

광산구·곡성 소외계층에 120박스 전달

금호타이어는 최근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이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타이어는 광주 광산구청과 곡성군 입면사무소에 총 김치 120박스를 전달했다.

김치는 지역 내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는 지난 2012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이웃사랑 캠페인 중 하나다.

정영모 광주공장장은 “추운 겨울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김장김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선민 곡성공장장은 “정성과 감사함을 가득 담은 김치를 드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면서 “금호타이어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지역민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 뵙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 사업장 인근에서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다. 또 주기적으로 타이어 무상점검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써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

오비맥주, 혁신 성과 인정
‘소비자 중심 제품혁신 대상’

오비맥주는 한국소비자학회 주관 ‘제18회 2025소비자대상’에서 ‘소비자 중심 제품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건강 지향 소비 확산, 맛의 다양화, 새로운 음용 경험 등 세분화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포트폴리오 혁신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대상’은 국내 대표 소비자 학술단체인 한국소비자학회가 주관해 2007년부터 매년 소비자 지향적 우수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오비맥주는 카스 중심의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헬시 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카스 라이트’, ‘카스 0.0’, ‘카스 레몬 스퀴즈 0.0’ 등을 선보였으며, 올해 8월에는 국내 최초로 알코올, 당류, 칼로리, 글루텐을 모두 제거한 ‘4無(무)’ 콘셉트의 ‘카스 올제로(Cass ALL Zero)’를 선보였다.

오비맥주는 또 새로운 맛을 찾는 소비자 요구를 기반으로 ‘카스 레몬 스퀴즈’와 고도수 버전인 ‘카스 레몬 스퀴즈 7.0’ 등을 출시하며 기존 라거 제품 외에도 플레이버 제품의 라인업을 강화했다. 극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린 올 여름에는 ‘시원함’을 극대화시킨 ‘카스 프레시 아이스’를 선보였다. 부드러움과 풍성한 거품이 맥주시장 소비자 트렌드로 떠오르자 오비맥주는 프리미엄 라거 브랜드 ‘한맥’ 특유의 부드러운 거품을 생맥주처럼 즐길 수 있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캔’을 내놓기도 했다.

오비맥주의 제품 혁신은 시장 성과로 이어졌다. 오비맥주의 대표 브랜드 카스는 2012년부터 13년 연속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카스 프레시’는 2025년 1분기 가정용 시장에서 점유율 48%로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0일 나라키움광주통합청사 1층 중회의실에서 수출분야 중심으로 ‘2025년 제12회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중기 수출 확대방안 머리 맞대

광주전남중기청 등 유관기관 협의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0일 나라키움광주통합청사 1층 중회의실에서 수출분야 중심으로 ‘2025년 제12회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청을 비롯해 전남도, 광주시, 광주세관 등 관계자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의회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수출 관련 지자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수출지원 실적, 내년 업무계획 공유, 기관간 협업 강화 방안, 현장 수요 기반 지원사업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올 한 해 동안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진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정책자금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선발 지정 등 다양한 성과가 공유됐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정책 논의도 이뤄졌다.

박종찬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GICON, 미·중 글로벌 IT 연수…현장 탐방·역량강화

호남 ICT 인재, 구글 등 방문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2025년 호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우수 성과자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현지 IT 연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하고 GICON이 주관하는 호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올해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낸 광주·전남·전주·제주 지역 교육생들이 글로벌 기술 환경과 산업 동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GICON은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5박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차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단은 구글, 스탠퍼드대 등 글로벌 기업과 기관을 방문해 현업 전문가 특강을 듣고 현직 개발자들과 기술 트렌드를 공유했다.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에서는 한인 스타트업 CEO와 아이디어톤·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실전형 기획·문제해결 역량을 높였다. 참가자들은 “글로벌 기업 개발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무 역량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4박 5일) 중국 상하이·항저우에서 2차 연수가 진행됐다. 연수단은 딥블루테크놀로지, 육소룡 등 글로벌 기술기업을 방문해 중국의 빠른 기술혁신 환경을 직접 경험했다. 한 참여자는 “중국 기업 사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확인했다”며 “기술 적용 방향을 명확히 하고 협업 네트워크를 확대할 비전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호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우수 성과자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5박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차 연수를 진행했다.